



병력청취 I 간질환의

**의사들은
환자가 간질환이 의심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가족 중에 간이 나쁜 환자가 있는가?
B형 간염의 경우 어머니에서 자식으로 전염되는 수직감염이 많고, 긴밀한 접촉을 하는 관계에서 전염의 위험이 높다. 어떤 집안에 간 환자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고 만성간염이 유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어오는 이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생활하기 때문에 전염의 위험이 높은 것이다.

술을 많이 마시는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서왔는가?

이는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다른 원인에 의한 만성간염을 갖고 있는 경우에 과음을 하면 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수혈을 받은 적이 있는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 침을 맞거나, 문신을 새기거나, 마약 주사를 맞은 일이 있는가? 귀를 뚫지 않았는가? 직업이 무엇인가?

B형이나 C형 간염은 모두 오염된 혈액에 의해 전염되기 쉽다. 상기 위험 요인들은 오염된 혈액에 의한 전파를 가능하게 한다. 직업 중에는 간염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이 큰 것들이 있다. 가령 외과의사나 치과의사, 임상병리 기사 등 혈액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들이 그러하다.

한약, 양약, 녹즙, 민간요법 등을 하지 않는가?

간은 약제에 의한 손상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 간은 각종 약물이 대사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간독(肝毒)이 생겨나서 손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진통해열제인 '타일레놀'에 의한 간 손상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한

약이나 민간요법에는 성분 미상의 약초가 많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간에 해로운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 이런 약제들을 복용하고 누구에게나 간손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간혹 심한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간질환이 있는 이들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간기능검사

간이 갖고 있는 기능은 다양하기 때문에 간기능 검사란 이들 각각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들을 총칭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간기능과 관련된 일반화학검사를 가리킨다. 흔히 말하는 간기능검사라 함은 혈액검사로서 혈중 콜레스테롤, 단백질, 알부민, 빌리루빈,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AST, ALT(총래의 GOT, GPT) 등을 일괄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AST, ALT

AST 및 ALT는 간세포 안에 들어있는 효소로서 간세포가 파괴되거나 손상을 받으면 유출되어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급성이나 만성간



흔히 말하는 간기능검사라 함은 혈액 검사로써 혈중 콜레스테롤, 단백질, 알부민, 빌리루빈,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AST, ALT(종래의 GOT, GPT) 등을 일괄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염 시에 이 수치들이 올라간다. 따라서 간염의 정도를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검사로서 일반인들이 흔히 '간수치' 또는 '간염수치' 라고 부르는 것이다. 정상은 대개 40까지이며, ALT가 AST보다 더 정확히 간질환을 반영한다. 이 검사는 간염의 정도를 아주 정확히 반영하는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만성간염에서 10~20 정도의 사소한 수치 변동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질병 경과 중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는 것이다.

간경변증이 되면 AST, ALT치는 오히려 정상이거나 정상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요인을 고려함이 없이 단지 AST, ALT치가 정상에 가깝다고 간질환에 대해 안심할 수는 없다.

빌리루빈

황달을 반영하는 검사치이다. 간은 담즙을 만들어 배출한다. 따라서 기능을 하는 간세포의 수가 충분치 않으면 간의 담즙 배설 기능에 장애가 와서 혈중 빌리루빈이 증가하게 된다. 만성간염이 심하거나 진행된 간경변증이 있을 때 이러한 소견을 볼 수 있다. 간경변증 환자에서 황달의 정도는 잔여 간기능의 정도를 시사하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알부민

알부민은 혈청 단백질의 50~60퍼센트를 차지하며, 간에서 만들어진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간에서 생산되는 주요 단백질이다. 따라서 기능을 하는 간세포의 수가 충분치 않으면 알부민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여 혈청 알부민이 낮아진다. 따라

서 혈청 알부민 농도 역시 잔여 간기능의 정도를 시사하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알부민 치가 낮으면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Alkaline phosphatase 또는 AP)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에서도 올라갈 수 있으나, 만들어진 담즙이 간세포에서 잘 배출되지 못하거나 담도가 막혔을 때 현저히 증가한다. 간에 종양이 생겼을 때도 올라갈 수 있다.

간 이외의 질환 중에서는 골(骨)질환이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다.

감마GT (gamma glutamyltranspeptidase 또는 γ -GT, GGT)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와 임상적인 의미는 비슷하다. '알칼리성 포스파타제'가 증가하였을 때 이것이 간질환 때문인지 또는 간 이외의 질환 때문인지를 감별할 때 GGT가 도움이 된다. GGT가 동반 상승되어 있으면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의 상승은 간질환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또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도 GGT가 상승한다. 따라서 술을 절제하는지 또는 계속 많이 마시고 있는지를 볼 때 GGT가 도움이 된다.

프로트롬빈 시간 (prothrombin time 또는 PT)

간세포에서는 혈액응고인자들을 만들어내는 데 기능을 하는 간세포가 충분치 않으면 이것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혈액응고가 지연될 수 있다. 프로트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또는 PT)은 혈액응고 시간을 직접 측정하는 검사이고 잔여 간기능을 평가하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